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7/14/2016

주지사 앤드류 M. 쿠오모

쿠오모 주지사가 이 분야 최초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미국 시민권 증진 프로그램 "NATURALIZE NY"을 출범시켰습니다

New York Daily News, Robin Hood Foundation, SUNY Albany, Stanford University 및 George Mason University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NaturalizeNY" 프로그램이 자격을 갖춘 2,000명의 저소득 근로 이민자들을 위해서 시민권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125만 달러의 투자금이 금전적 비용을 상쇄하고,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을 경감시키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주지사는 개인들이 시민권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 NaturalizeNY.org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앤드류 M.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에 있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이 분야 최초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NaturalizeNY"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귀화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무료 자격 심사, 신청 절차 지원, 귀화 시험 준비, 그리고 시민권 자격을 갖춘 저소득 이민자들을 위한 2,000개의 무료 귀화 신청 바우처 추첨권이 포함됩니다. NaturalizeNY은 New York Daily News, Robin Hood Foundation, New York Community Trust, SUNY Albany, Stanford University, George Mason University 및 주 전역의 추가적인 비영리 기관들과 협력해서 뉴욕 주의 뉴 아메리칸 사무국(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에 의해 관리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의 국가이며, 뉴욕은 다양성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국가적인 논쟁의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우리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도구 및 자원에 대한 보다 큰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우리는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주 하원의장 칼 히스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에는 미국 시민이 되려는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절차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귀화 절차를 통해서 지침을 제공하고, 너무 많이 벌어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2,000명의 이민자들을 위해서 거의 700달러의

신청 수수료 문제를 처리해줌으로써, 우리는 개인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그들이 우리 주와 국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됩니다. 하원의 다수당은 우리 이민자들을 열렬히 옹호하고 있으며, 드림 액트(DREAM Act)를 포함해서 그들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국가가 반이민 정서에 압도되고 있는 시기 동안, 뉴욕은 아메리칸 드림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보장하는 데 진취적인 리더로서 남아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주 상원 민주당 지도자 안드레아 스투어트 커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국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욕은 ‘엠프라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입니다. 주 상원의 민주당은 경제적 성공의 핵심이 모든 뉴욕인들의 잠재력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에 가장 새로이 정착한 거주자들에 대해 놓여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투쟁을 선도하는 것을 도와왔습니다. 저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께 찬사를 보내며, 보다 더 강력하고, 공정하며, 열려 있는 뉴욕 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계속 노력하기를 고대합니다.”

NaturalizeNY은 종합적인 시민권 취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귀화 절차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며,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저소득 근로 이민자들을 위한 2,000개의 귀화신청 수수료 바우처에 대한 추천권이 포함됩니다. 연례적인 "Daily News/CUNY Citizenship NOW!"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수천명의 뉴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이민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New York Daily News가 9월에 1차 수령자들의 선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추가해서, NaturalizeNY은 우리 주의 경제도 부양할 것입니다. Urban Institute에서 수행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경우에 소득이 평균적으로 8.9% 증가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공적 혜택에는 더 적게 의존하게 됩니다. 뉴욕시의 경우에, 이것은 모든 자격 있는 이민자들이 시민이 되는 경우, 7억 8,900만 달러의 세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공적 지출의 감소와 더불어 순수하게 8억 2,300만 달러의 혜택을 뉴욕에 제공합니다.

시민권 취득 지원

우리 주에서는 NaturalizeNY의 중심적 구성요소로서, 뉴욕 전역에 걸쳐 27개의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에서 시민권 및 귀화 법률 클리닉을 운영할 것입니다. 각각의 법률 클리닉에서는 귀화 신청 예정자들에게 무료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에 관한 정보
- 취득 자격 사전 검토
- 귀화 신청 지원
- 귀화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
- 영어 및 시민 생활 강좌

추가적인 귀화 지원 서비스들이 주 전역에 걸쳐 숙련된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될 것입니다. 기회 센터들의 위치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신청 수수료 바우처 추천권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그런 카드를 보유하고 있고 시민권 자격을 갖춘 사람이 뉴욕 주에 915,000명 있으며, 그 중 대략 654,720명이 뉴욕 시에 거주합니다. 연방에서 부과되는 개인의 신청 수수료는 현재 680달러이며, 올해 후반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Urban Institute에서 수행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들이 아직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개인별 신청 비용과 관련됩니다. 저소득 이민자들을 위한 연방 신청 수수료 면제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인 많은 신청자들은 연방 귀화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간 30,000달러를 버는 개인의 경우, 연방 수수료를 면제받기에는 그 소득이 너무 높지만, 여전히 귀화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 대략 1주일치의 소득을 소비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2,000명의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뉴욕 주, Robin Hood Foundation 및 New York Community Trust는 수수료 지원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12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캠페인 파트너들이 연방 정부에 직접 납부하며, 필요한 귀화 절차 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바우처는 향후 12개월에 걸쳐 배부될 것이며, SUNY Albany, Stanford University 및 George Mason University 담당자들이 관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가구 소득이 30,240달러와 60,480달러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도록 권장됩니다. 등록은 오늘부터 개시해서 9월 23일에 마감됩니다. 예상되는 신청자들은 www.NaturalizeNY.org를 방문해서 자신의 시민권 취득 자격과 바우처 추천권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New Americans Hotline, 전화번호 1-800-566-7636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 아드리아노 에스페일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 주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용광로로서 오랜 기간 성공적인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부담은 자신들이 할애할 수 없는 금전과 시민권 취득의 꿈 사이에서 너무도 많은 이민자들에게 가슴 아픈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귀화 절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의 손길을 제공합니다. NaturalizeNY를 통해서, 쿠오모 주지사는 시민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국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 브래드 홀리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혁신적인 이민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쿠오모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NaturalizeNY은 민간 및 공공 파트너들이 협력해서 자격 있는 이민자들에게 귀화 절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욕 주에서 우리는 이민자들이 경제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핵심적 기여자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수천명의 이민자들을 위해서 보다 확실한 길을 보장하면서, 대처할 수 없었던 이전의 많은 장애를 제거해줍니다.”

주 하원의원 프란시스코 모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 주의 경제에 필수적인 일부지만, 그들이 완전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고비용의 부담이 큰 귀화 장애물에 너무나 자주 직면합니다. 입법부에 있는 동안, 저는 우리 주가 이민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경감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해왔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더 우리 지역사회와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Naturalize NY**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우리가 우리 주를 위한 밝고, 활기차며, 다양성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저는 이러한 앞 길을 닦아 나가고 있는 쿠오모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원의원 린다 B. 로젠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적법한 길을 추구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야 하며,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진실을 인식하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미국 시민권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도록 돕는 용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시들이 뉴욕을 뒤따라야 합니다.”

New York Daily News 편집장 짐 리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주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조치는 환상적입니다. **Daily News**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원이 된 것이 너무도 벅잡니다.”

뉴욕 주 국무장관 로사나 로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꿈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시민이 되기 위한 비용이 종종 많은 사람들을 이 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NaturalizeNY**은 수천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 주 뉴 아메리칸 사무국 디렉터 로라 곤잘레스 머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 주 뉴 아메리칸 사무국과 여기에 소속된 기회 센터 네트워크는 우리 주의 방대한 이민자 사회가 뉴욕 구성원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그 자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뉴욕 이민연합청(Immigration Coalition) 상임이사 스티븐 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시민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될 자격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귀화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주지사의 노력에 찬사를 드립니다.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백만 명에 가까운 뉴욕거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가 그들이 시민이 되기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장애

중 하나가 귀화와 관련된 높은 수수료인데, NaturalizeNY 추첨권을 통해서 시민권 자격을 갖춘 저소득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의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한 최종적인 장애물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Robin Hood Foundation 서바이벌 프로그램 경영이사 베욘 받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소득 근로자인 이민자 가족이 시민이 되도록 돕기 위한 이 노력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민자 지위는 상류층으로의 이동과 안정성에 대한 직접적 통로를 제공하므로, 이와 같은 노력은 빈곤과 싸우는 우리의 미션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New York Community Trust 교육 및 휴먼 저스티스 프로그램 디렉터 손 모어헤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 시의 이민자들은 시의 시민 생활과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 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사회 재단으로서, 우리는 뉴욕이 우리의 모든 거주자를 위해서 생활하고, 일하며, 즐기기 위한 훌륭한 곳이 되게 만드는 데 헌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뉴욕커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드는 금전적 부담과 그 밖의 부담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Hispanic Federation 회장 호세 칼데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Hispanic Federation은 모든 뉴욕커들, 특히 이민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굉장한 혜택이 될 프로그램인 NaturalizeNY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쿠오모 주지사와 뉴 아메리칸 사무국에 찬사를 보냅니다. 높은 비용이 귀화에 대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우리 주에 있어서,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최선의 이익입니다. Hispanic Federation의 뉴 아메리칸 사무국 기회 센터는 주 전역에 걸쳐 이민자들을 위한 리소스 허브로서 계속 봉사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센터들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확대를 환영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데이비드 래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미국 시민권 신청자들의 등록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인생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Asian American Federation 상임이사 유조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 아메리칸 사무국은 사람들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길을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민자 지역사회에 실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회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Asian American Federation과 협력함으로써, 예컨대 뉴 아메리칸 사무국은 우리가 중부 브루클린의 남아시아인들과 무슬림 지역사회에 중요한 ESOL 및 귀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이러한 도움이 없다면, 이들은 보다 큰 뉴욕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적 문화적 대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민 생활의 모든 측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새로운 시민과 유권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CUNY Citizenship Now 디렉터 앨런 워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NY Citizenship Now!는 앤드류 M. 쿠오모 주지사의 NaturalizeNY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에

참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수천명의 뉴요커를 돕고 있는 국내 최대의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권 및 이민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는 무료 시민권 신청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Citizenship Now!**와 우리의 수백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뉴요커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돕는데 있어서 뉴욕 주 뉴 아메리칸 사무국과의 협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선도적 노력 강화

Naturalize NY은 이민자들과 소수자들이 뉴욕의 시민 생활과 경제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돕기 위한 쿠오모 주지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임기 첫 해인 2011년에, 주 기관들이 일반 공중에게 중요한 서식 및 지침에 대한 무료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적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명령 26호를 발령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지도하에, 뉴욕 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도 취했습니다.

- 뉴 아메리칸 사무국을 설립했으며, 이는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뉴욕 주의 일원이 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주의 신규 전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국가 법령에 의해 창설된 주 수준의 최초 이민 사무국입니다.
- 이민자들을 이민 관련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출범시켰으며, 여기에는 이민 지원 서비스 사기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령에 서명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쿠오모 주지사는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처우받고, 사업 운영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자 착취 근절 대책팀과 네일 살롱 산업 감독 대책팀을 출범시켰습니다.

미국 시민 자격 취득

연방 정부는 개인이 의회가 정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후에, 적법한 지위를 구비한 이민자들에 대해서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귀화(naturalization)로 칭해지는 시민 자격 취득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신청서 제출, 연방수사국의 범죄경력조회를 위해서 사용될 지문 제출, 언어 및 시민 생활 시험 통과, 그리고 연방 이민국 공무원과의 인터뷰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시민권 수여식에서 충성 서약(Oath of Allegiance)을 한 후에야 미국 시민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 주 | 이그제큐티브 챔버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